



**RANKING DIGITAL RIGHTS**

**2018**

# 기업책임지수

2018 디지털 권리 순위(Ranking Digital Rights, RDR) 기업책임지수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영향력 있는 22개의 인터넷, 모바일 및 통신 기업을 대상으로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 해당 기업이 공개하고 있는 공약 및 정책을 평가한다.

[RANKINGDIGITALRIGHTS.ORG/INDEX2018](http://RANKINGDIGITALRIGHTS.ORG/INDEX2018)

2018 년 4 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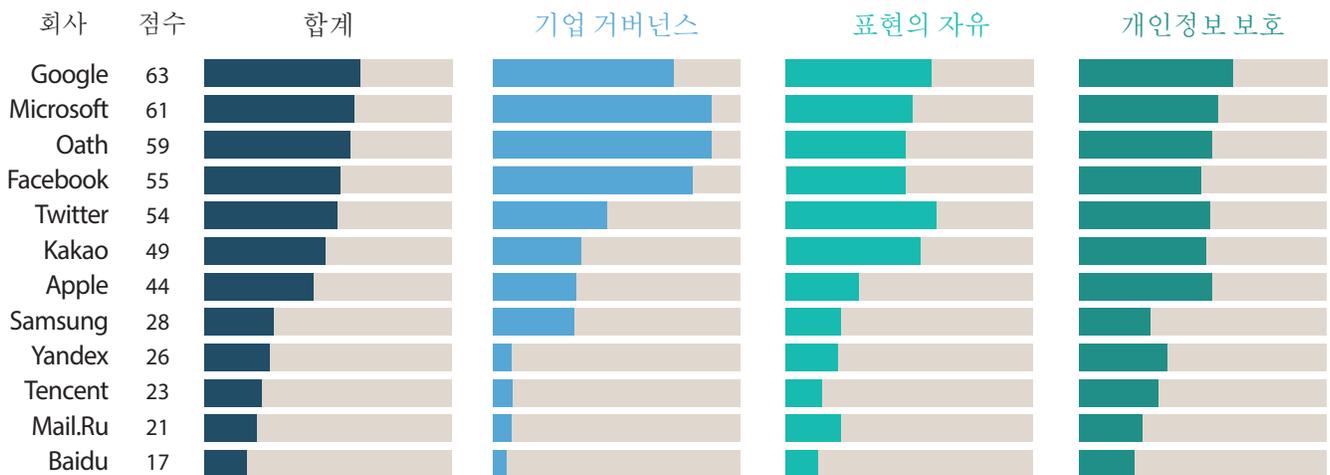


# 2018 기업책임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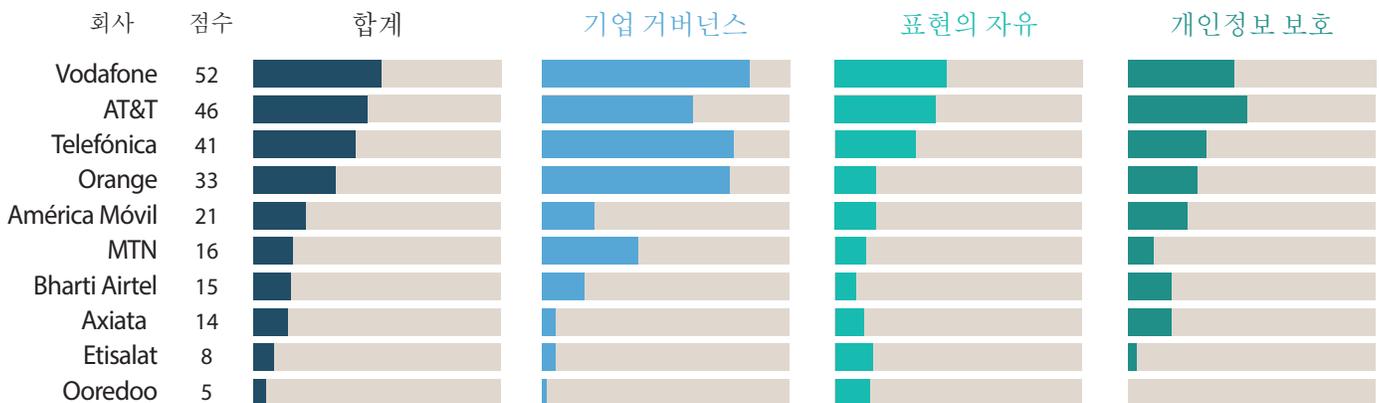
2018년 디지털 권리 순위(Ranking Digital Rights, RDR) 기업책임지수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영향력 있는 22개의 인터넷, 모바일 및 통신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이 공개하고 있는 공약과 정책 중 거버넌스, 책임체제 등 표현의 자유와 개인정보 보호에 영향을 미치는 영역별 총 35개의 지표에 대해 점수를 매기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평가 대상 기업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전 세계 42억 명의 인터넷 이용자 중 절반 이상이 사용하고 있다.

이번 기업책임지수는 2015년 11월, 2017년 3월에 이어 세 번째로 발간되었다. 올해의 지수에서는 2017년 지수 평가 대상과 동일한 기업들 및 평가 지표를 사용하였다. 보다 자세한 결과 및 정보, 관련 자료는 RDR 웹사이트([rankingdigitalrights.org](http://rankingdigitalrights.org))에서 조회하거나 다운로드할 수 있다.

## ● 인터넷·모바일 기업



## ● 통신 회사



# 주요 발견사항

표현의 자유 및 개인정보 보호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및 관행에 대한 투명성 부족.

2018년 기업책임지수의 평가 대상이었던 기업의 반 이상이 유의미한 향상을 보였으나 대부분의 기업들은 이용자의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디지털 플랫폼 및 서비스 디자인, 관리, 거버넌스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평가 대상 기업 중 구글(Google)과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만이 종합적으로 총 60점 이상의 점수를 받았으나 두 기업이 모든 평가 지표에서 다른 기업보다 높은 점수를 받은 것은 아니며, 일부 지표에서는 다른 인터넷·모바일 기업보다 낮은 점수를 받았다.
- 보다폰(Vodafone)은 AT&T를 제치고 이동통신사 중 유일하게 50점 이상을 받았다. 기업 거버넌스 관행과 정부의 네트워크 차단 명령 대응 절차에 대한 투명성 향상에 힘입은 결과였다. 또한 이번 기업책임지수 평가 대상 기업 중 데이터 유출 관리에 대한 정보를 공개한 유일한 기업이다.
- 페이스북(Facebook)은 종합적으로 네 번째로 높은 점수를 받았으나 이용자 정보 취급 관련 부분에서는 동종 기업보다 형편없는 점수를 받았다. 그러나 정부의 이용자 정보 요청이나 합법적 계정 이용 제한 및 콘텐츠 삭제 요청에 대한 투명성은 제고하였다.
- 2017년과 비교해 가장 높은 점수 증가를 보인 기업은 애플(Apple)로, 8점이 올랐다. 투명성 보고의 개선과 전문가와 제3자에게만 공개했던 자사의 정보 제공 웹사이트를 이용자에게 직접 공개한 점이 높은 점수를 이끌어냈다.

보다 자세한 자료 및 데이터, 분석은 웹사이트 ([rankingdigitalrights.org/index2018](http://rankingdigitalrights.org/index2018))에서 확인할 수 있다.

평가 대상인 22개 기업 전반에서 대두된 문제점은 아래와 같다.

- **기업 거버넌스:** 기업의 감독과 리스크 평가 측면에서 볼 때,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 및 프라이버시에 대한 권리를 우선시하는 기업이 거의 없다. 정부의 검열 및 감시, 악의적인 비국가행위자뿐만 아니라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과 관련된 관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광범위한 표현의 자유 및 프라이버시 리스크를 확인하고 완화하기 위한 적절한 절차나 장치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
- **보안:** 다수의 평가 대상 기업은 사용자 데이터 보호 방안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 이로 인해 이용자들이 특정 플랫폼 및 서비스 사용 시 직면하는 리스크에 대해서 알지 못하며, 동시에 기업의 보안 실패는 전 세계적으로 이용자들에게 심각한 경제적, 재정적, 정치적, 그리고 인권에 대한 피해를 야기한다.
- **개인정보 보호:** 평가 대상 기업들은 이용자 정보 처리, 즉 기업이 수집·공개하는 이용자 정보의 종류, 공유 주체 및 상황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 수집된 이용자의 정보가 타깃 광고에 어떤 방식으로 공유되는지도 알 수 없다. 기업의 불투명성은 디지털 플랫폼과 서비스가 기관 및 사회 공동체 그리고 개인 이용자를 공격하고자 하는 주체를 포함한 국가 및 비국가행위자에 의해 쉽게 남용되거나 조작될 가능성을 야기한다.
- **표현의 자유:** 평가 대상 기업들은 그들이 제공하는 플랫폼이나 서비스를 통해 콘텐츠 및 정보 흐름이 형성되거나 감시되는 방식에 대한 정보를 대중과 충분히 공유하지 않는다.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다수의 국가에서 허위 정보를 퍼뜨리고 정치적인 결과를 조작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기업들이 콘텐츠를 감시하고 관리하는 데에 있어서 책임감이 부족하며 투명성 또한 높지 않다.

# 주요 권고사항

본 기업책임지수의 평가 대상 기업들은 법적, 정책적 개혁 없이도 즉각적인 변화를 단행할 수 있다. 기업의 투명성과 책임은 인권보호 의무를 다하는 정부 없이는 불완전하나, 정부가 이런 의무를 지키지 못하는 상황에서 기업은 이용자 권리에 미치는 영향을 제한할 수 있는 한 책임을 질 수 있고 져야만 한다. 자세한 권고사항은 기업책임지수 및 각 기업의 평가 보고서에 명시되어있으며, 모두 7가지 분야를 아우른다.

- 1. 기업 거버넌스 강화.** 기업들은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 및 개인정보 보호 존중에 대한 의지를 명확히 하고 그 의지가 이사회 및 임원 감독, 전사적 직원 훈련, 내부 보고 및 고발 프로그램을 통해 체계화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 2. 리스크 평가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 기업들은 종합적인 실사 과정을 적용해 그들의 경영활동 및 제공하는 제품과 서비스가 이용자 권리에 미치는 악영향을 예측하고 완화할 수 있어야 한다.
- 3. 의미 있는 이의 제기 및 개선 장치 제공.** 기업들은 자신의 행위로 인해 권리를 침해받은 이용자나 다른 이해당사자들이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채널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이의 제기에 관한 대응 절차 및 적절한 시정사항을 명확히 공개해야 한다.
- 4. 투명성 및 책임 제고.** 기업들은 어떠한 경우에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되고, 게시물이 검열되거나 제한되고, 서비스 접속이 차단되거나 제한되는지에 대한 정보 및 데이터를 공식 웹사이트에 공개해 이용자와 대중의 이해를 도와야 한다.
- 5. 개인정보보호 강화.** 기업들은 이용자에게 그들의 정보가 활용되는 방식을 알려주고 서비스 제공에 꼭 필요한 데이터만을 최소한으로 수집·사용해야 한다. 또한 이용자가 제공하는 정보 및 그 정보가 어떤 주체와 공유되는지에 관해 이용자에게 최대한의 통제권을 부여해야 한다.
- 6. 보안 강화.** 기업들은 이용자 정보 보호 노력에 대해 신뢰성 있는 증거를 공개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산업 기준의 강력한 암호화 및 보안 수준 유지, 보안 감사 실시, 직원의 정보 접속 관리, 데이터 유출 관리 과정 설정 등의 실행 여부를 공개해야 한다.
- 7. 인권에 기여하는 혁신.** 기업들은 정부 및 시민사회와 협력해 인권을 강화하는 새로운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 개발에 투자하며, 개인정보 및 콘텐츠에 대한 개인의 통제권 및 소유권을 최대화해야 한다.

디지털 시대의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법적, 규제적, 기업적 기준을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 함께 나아가야 한다.

## 디지털 권리 순위 기업책임지수란?

디지털 권리 순위(RDR)는 뉴아메리카 재단 산하 오픈 테크놀로지 연구원의 비영리 연구 프로젝트이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영향력 있는 인터넷, 모바일, 이동통신 기업들을 대상으로,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해 기업이 공개한 공약 및 정책을 평가하여 순위를 책정한다. 기업책임지수의 평가 기준은 인권, 프라이버시, 보안 옹호 단체들이 십여 년간 쌓은 업적을 기반으로 만들어졌으며 데이터 및 분석 결과는 인권 활동가, 정책 입안자, 책임 있는 투자자들의 노력을 자세히 알리고 기업들이 자사의 정책과 관행을 개선하는데 활용된다.

2018 기업책임지수 평가서 전체 데이터 및 분석 결과, 각 기업 평가 보고서, 다운로드 가능한 보고서, 미가공 데이터는 [rankingdigitalrights.org/index2018](https://rankingdigitalrights.org/index2018)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